

여성! 그 당당한 이름으로!



서울여성의전화 SEOUL WOMEN'S HOTLINE

36호

100-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-84 여성평화의집 3층
 전 화 : 2272-2161~4 전 송 : 2272-2190 상담전화 : 2263-6464~5
 천리안·하이텔 : swhl 나우누리 : sewhl
 인터넷 : <http://seoul.hotline.or.kr>
 E-MAIL : hotline@hotline.jinbo.net

펴 낸 곳 : 서울여성의전화
 펴 낸 날 : 2001년 3월
 펴 낸 이 : 이문자
 편집한이 : 이화영

차 례

◆특집글

▷차별?편견?평등·참여사회로! / 이화영 (편집부)

▷추방! 사이버 성폭력 / 구희선 (편집부)

◆회원글

▷드라마를 통해 본 이 시대의 아줌마

/ 김영자(30기 상담회원)

▷가정폭력 피해자 신○○씨에 대한 항소심판결 항
의집회를 다녀와서 / 김혜원 (3기 법정모임)

▷가슴벅찬 감동을 전합니다!

/ 행복이(쉼터 거주자)

◆2월 활동소식

◆내일소리통

◆회원모임활동

◆소모임탐방

▷1366야간상근자모임 / 편집부

◆회비현황

◆통계와 활동

◆강서양천지회

▷강서양천지회 회원글

-상담활동을 하면서...

/이근안(강서양천지회 2기 상담회원)

▷강서양천지회 활동소식

▷지회 회비현황

◆달 령

※표지사진 : 2월20일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진
행된 신○○씨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항
의집회 사진입니다.

당신이 기억해야 하는 날

당신이 여성이라면

이 날을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날로 기억해 두세요.

아득히 먼 옛날부터 지구의 동과 서에서

당신들의 이제껏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날입니다.

이 날로써 비로소 당신들은

자기 눈으로 보고,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,

자기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.

이 날은 그저 약하기만 한 당신이 '여성'임을 자각하는 순간

운명처럼 여겨지는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

가르쳐 주었습니다.

'1908년 3월8일'

15,0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뉴욕 루트거스 광장에 모여

'하늘 아래 여자와 남자는 드릴 수 없다'고 선언하였습니다.

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

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.

당신의 날입니다.

-제17회 3.8세계여성대회 자료집 중에서-